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2016년 3월 15일
20번째 선교편지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10-301-602(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역 위해 늘 힘써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은 2016년의 첫 선교편지를 띄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캄보디아의 모습은 실로 도로 위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롭게 시행된 범칙금제도에 경찰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이 단속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범칙금이 5배로 상향 조정된 범칙금액에는 단속경찰의 뭇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방법으로 각자 자신의 뭇을 채기려는 경찰들이 늘어나면서, 캄보디아의 도로는 경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2월 둘째주, 주일 예배를 위해 차량은 운행하던 중, 앞(조수석)자리에 앉은 성도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호되게 신고식은 치주면서, 새롭게 바뀐 캄보디아의 법을 저와 함께한 성도들 모두 새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소식을 간략히 몇 장의 사진과 글로 전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가정사역

[하나된 가정과 다시금 시작된 현지적응]

지난 2월 1일, 아내 김은경 선교사와 세 자녀(지아, 지훈, 지민)가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재회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지의 기억들이 잊혀진 지아와 지훈이는 다시금 현지적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곳이 자신들이 살 곳이란 마음이 변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현재 먼지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먼지가 많은 동네인데, 작년 말부터 시작된 죄, 우측 집들의 공사조 하루에도 수 차례 가래를 토하고, 섭취했던 분유를 토해냅니다. 가능한 먼지 없는 장소를 찾다 보니, 식당공간을 개조하여 지민이의 거처로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온종일 에어컨을 켜놓습니다. 전기세가 비싸기로 소문난 캄보디아여서 곧 받아볼 고지서가 세금폭탄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들지만, 우선은 지민이의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민이의 건강문제가 가정과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동시에 세 자녀 모두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다시금 시작하는 언어공부와 홈스쿨링 사역]

아내 김은경 선교사는 그 동안, 지민이의 간호로 인해 내려놓았던 언어의 끈을 다시 잡고자, 틈틈이 언어교재와 단어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동시에 지아와 지훈이의 홈스쿨링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양성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을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구합니다. 김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상주서문교회 방문]

지난 3월 1일, 후원교회인 상주서문교회(담임목사님 내외분과 선교국 장로님과 집사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가정은 기억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현지적응으로 힘들어하던 지아와 지훈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시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도 가끔 그날을 기억하며, 혼자서 히죽히죽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방문해주신 상주서문교회만이 아닌 늘 가정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다시금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역자님들이 있어 늘 감사한 가정입니다.

교회사역

[마을 사역을 위한 장소를 허락하소서]

마음로 들어가 함께 지내며 예배드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돕기 원했던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까? 마을 이장과의 만남에서 이장의 바람도 동의함을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배 공간이 가능한 장소가 허락치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주인이 렌트가 아닌 구입을 희망하는지라 좀처럼 주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 쉽지 않네요. 더욱이 현지인들 사이에 외국인인 저희는 부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대지를 구입해 건축하는 것은 자꾸 속천하다 보니 좀 처럼, 그 폭이 좁아지지 않아 결코 쉽지 않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렌트를 희망하는 집의 주인이 제시한 집 값이라면, "대지를 구입해 건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매년 들어가는 렌트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이후의 사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바라며 간구하기는 사역의 활성화와 향후를 바라볼 때, 사역을 위한 대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음을 알기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을 부지의 공터를 허락하소서. 공터가 기도의 터가 되게 하시고, 배움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현재 [4m*20m] 기준 10,000불(시세가)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대지를 3~4개정도 붙여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향 조정하여 구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기에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주일예배 & 2부활동]

2016년 새해예배를 시작으로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한 달에 한번 말씀을 전한 것과는 달리 매주 설교를 담당하다보니 부족한 언어실력에 분담해야 할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 숙달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동시에 설교를 통해 다가감에 있어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다시 함께하면서, 예배도 전보다 활기를 띠는 듯합니다. 이제는 어엿해진 지아와 지훈이가 한양시 윙동팀으로 활동하면서 예배의 활력소가 되어주니 그 기쁨이 배가 되네요. 물론 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전에 25명 남짓 되던 예배의 인원수가 배가 성장하듯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67명까지 늘어나면서 이제는 차량운행의 수도 늘려야만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평균 예배참석인원이 평균 53명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예배의 분리가 전실해졌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어린이예배와 장년예배를 분리하여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배공간의 확충을 위해 장소 정비 중으로 몇 가지 환경미화작을 마치고 광고하고 분리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더 큰 부담감이 수도 있지만, 누가 그러더군요. 거룩한 부담감은 클수록 좋다고..., 감사함으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코자 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던 중, 분리예배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분리 이후 활동은 중심으로 다시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당란트시장을 준비하여 운용할 계획에도 있어 모든 활동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라며 기도하기는 특특이(2,500\$)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매번 9인승 차량에 2~30명(1회 운행시)의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동하는 것은 보면서, 예배라는 목적아래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것은 아닌가? 혹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차량이용이 거의 없다보니, 종종 멍미와 구토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특이 구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사역을 위해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사역자의 결혼]

한양팀 인도자로서 섬기고 있는 나로 형제가 3월 4일, 22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선 나로 형제의 인생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절 행사준비 & 마음후원]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의의 행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기쁨에 그치는 것 같아, 이번 부활주의의 주제를 "전하는 부활주의"로 정하여 마음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받는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함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현지학교 후원협력사역

[한국장애인협회 - 후원용품 전달]

한국장애인협회를 통해 전달받기로 한 문품(컨테이너)은 아직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찾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자 노력하는 협회에 그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부족한 액수의 금액이 속히 채워져 나누는 기쁨과 전하는 행복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현지학교 지원(범스나이 홀랭초등학교) / 언어학교 사역준비]

장애인협회를 통해 전달받게 될 컨테이너 문품이 들어오면 학교장과 협의하여 책걸상과 학교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품이 속히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계획중인 언어학교 준비가 속히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벌써 5개월째, 교육부 인가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그저 멍하니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속히 인가를 받아 처음 계획했던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사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 기도제목

[대지구입을 위해] "마음 부지의 공터를 허락하소서. 공터가 '기도의 터'가 되게 하시고, '배움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공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역 활성화와 향후 사역의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사역을 위해] 매주 준비하는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선포하는 문사와 언어의 문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분리예배(어린이 / 성인)가 은혜롭게 준비케 하시고,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픽업을 위해 토틱이(2500\$이상)를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입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학교지원사역] 장애인협회를 통해 전달받은 컨테이너가 속히 처리(전달)되기를 소원하며, 받은 문품으로 협의된 지원사역이 순적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또한 준비하고 있는 언어학교사역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하신 바,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언어학교 사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학교설립사역] 학교사역이 전대로 쉽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마음지원의 시작인 공부방 & 도서관 사역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보고 달려가되 작은 것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교부지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실 때를 구함이 우선이기에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주실 때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어진보]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확한 표현과 발음을 통해 바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가정을 위해] 2월 초, 입국한 아내 김운경 선교사와 세 자녀를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다시금 시작된 현지적응과 홈스쿨링 & 크마에 언어공부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셔서 연약한 자녀의 현지적응이 순적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파송교회 방문예정] 4월 초, (미국)파송교회 방문을 위해 잠시 귀국 길에 오릅니다. 이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